

2022
경남사회서비스

BRIEF

발행일 : 2022년 3월 31일 | 발행인 : 이성기 | 발행처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ISSN 2733-9181 [온라인용]

경상남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¹

박상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parksm@gn.pass.or.kr)

김익중 경상남도커뮤니티케어센터 센터장(hotaz@gn.pass.or.kr)

I

왜 경상남도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까?

1.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증가

•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021년 기준 27.8%에 달해,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동안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연간기준 7.2%로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에 비해 낮은 수준임(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 이러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의 저조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더불어 정신응급의료센터의 부재, 정신재활시설의 부족,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 사회적 인프라의 미흡이 원인일 수 있음

•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는 2019년 '진주 안인득 사건' 같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대인관계 제한, 실직, 돌봄 스트레스 등으로 전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동시에 의료접근성의 약화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낮아짐. 이러한 정신건강의 약화는 의료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의 제한, 자살 위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지역사회 돌봄 중심의 정책 기조

• 최근 정부는 커뮤니티케어²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주도하에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장애인, 노인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전유미·강기정,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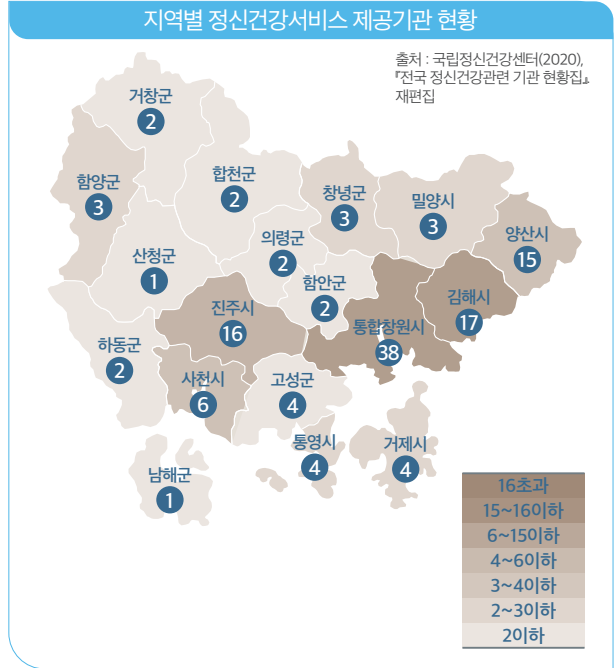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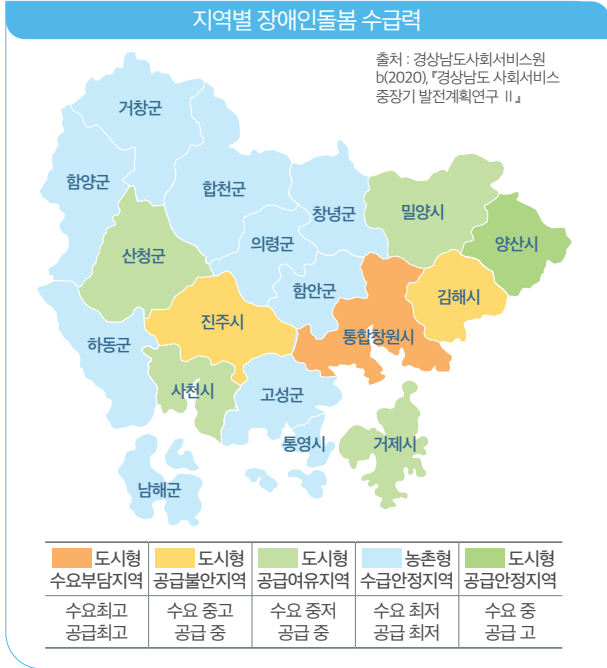
■ 이러한 정책방향과 사회적 환경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경상남도의 현 실태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¹ 본 브리프 7호는 2021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기본연구과제인 「정신건강서비스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 연구」의 일부를 발췌 및 재편집한 것임. 지면의 한계 상 본문에 실지 못한 부분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의 정책연구자료실을 참고하기 바람

²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민간-이웃-가족 등에 의해 주거와 돌봄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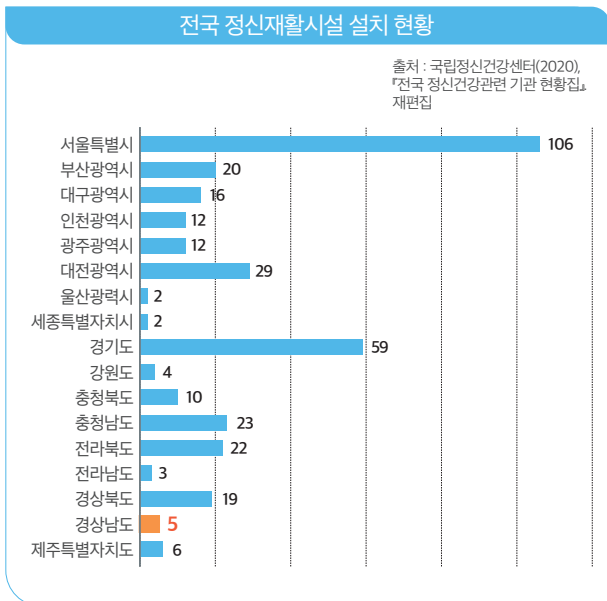
2. 경상남도 내 정신건강서비스의 실태는 어떠한가?

■ 경남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의 동·서 격차



- 경상남도 내 지역별 장애인돌봄 수급력을 보면 서부경남지역의 공급률이 낮음. 장애인돌봄 수요와 공급이 창원을 중심으로 주로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 동부권의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기초건강복지센터가 각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서부경남 지역은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임. 특히 남해와 산청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외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임.
 - 이는 경남권의 인구분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수요가 낮다는 것이 인프라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기반 시설의 부족



• 정신재활시설의 절대적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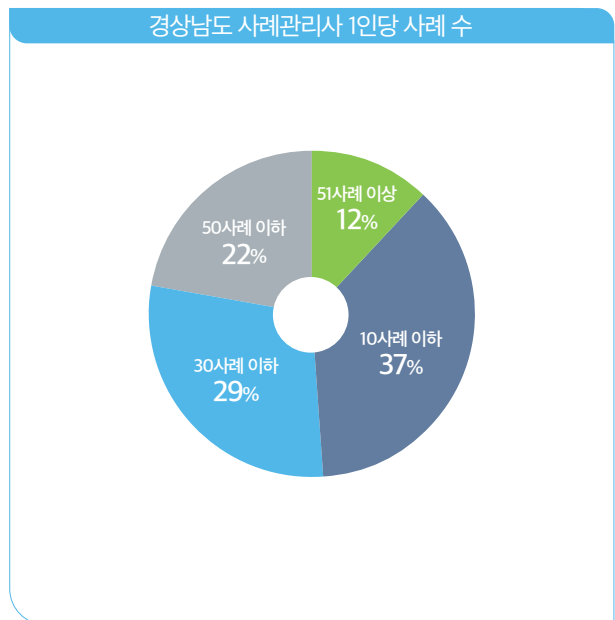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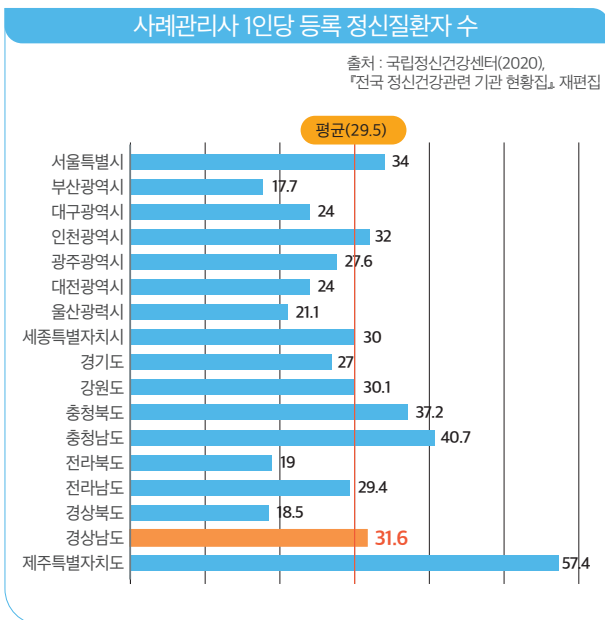
-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함에 필요한 일상적인 지원을 가족을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김문근, 2019).
- 경상남도 내 정신재활시설은 총 5개소로, 전국 평균 20.6개소에 못 미치는 수치임

• 경상남도 동부권과 서부권 간 정신건강 의료기관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

- 의료기관이 주로 동부권 대도시에 치중되어있고, 산청군과 남해군은 아예 정신건강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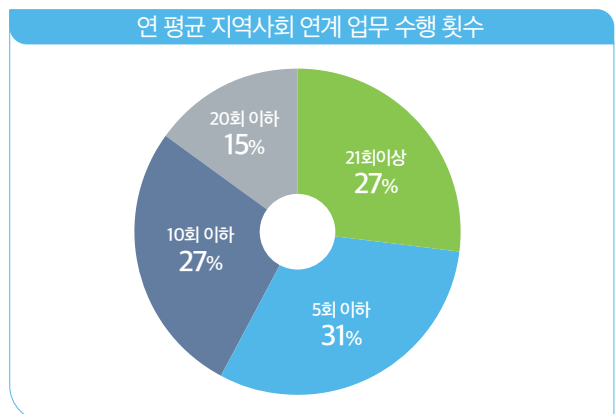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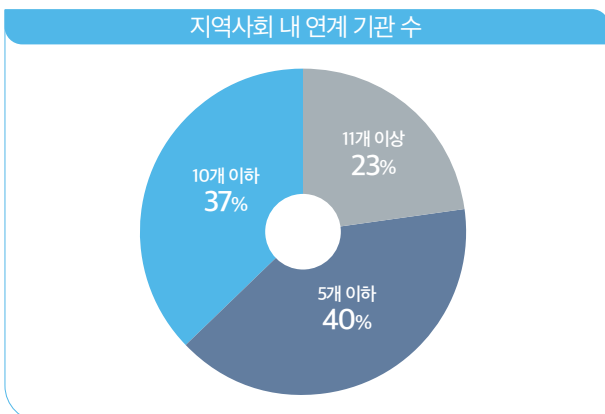
■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 경남 내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력부족은 현장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음(전진아 외, 2017)
- 국립정신건강센터(2020)에 의하면 경상남도의 '사례관리사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31.6명으로 전국 평균인 29.5명보다 **과중한 수준**이었음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2021)의 조사에서는 10사례 이하가 37%, 50사례 이상이 12%로 기관별 사례 관리사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간 네트워크 부족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2021) 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기관수는 5개 이하가 40%에 달하여 **기관 간 연계가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연 평균 지역사회 연계 업무 수행횟수도 5회 이하가 31%에 달해 **연계기관과의 교류 역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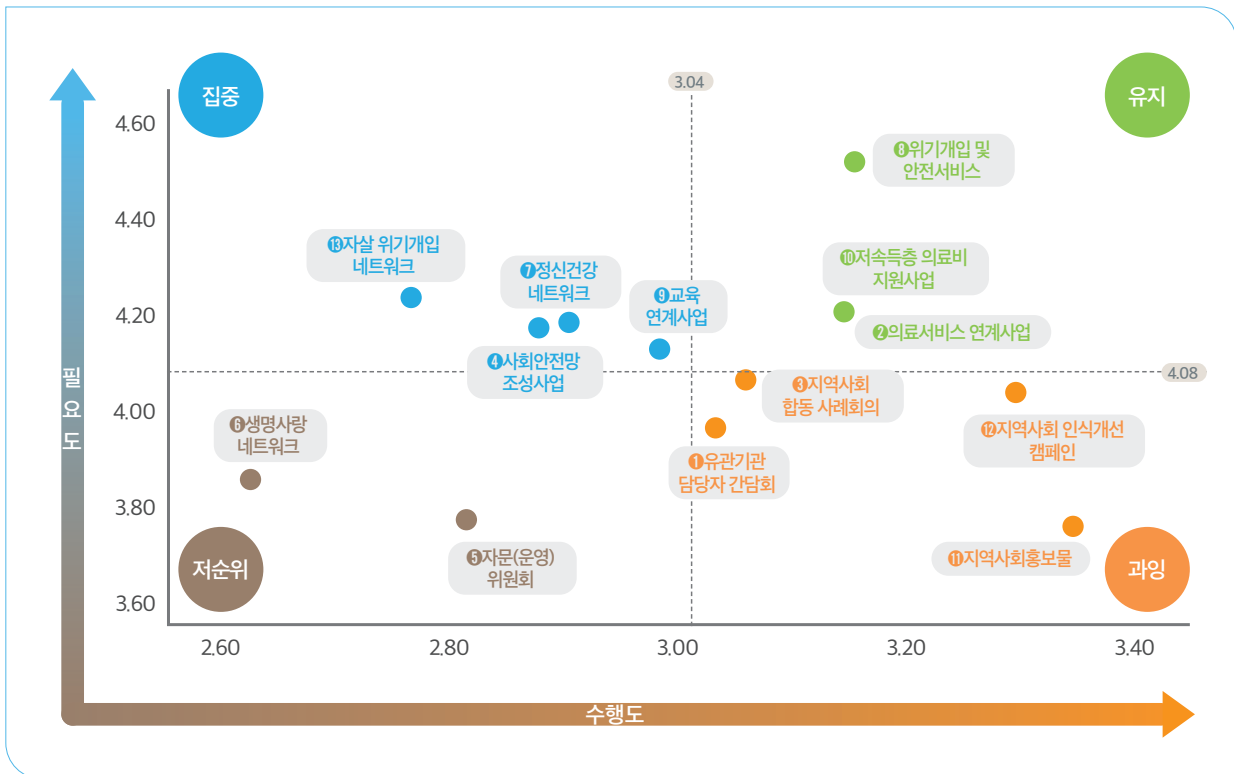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가 보는 정신건강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현황과 정신건강서비스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자 2021년 8월 26일 ~10월 15일까지 경상남도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2. 정신건강 업무의 우선순위 (IPA 분석³⁾)

□ 지역사회 연계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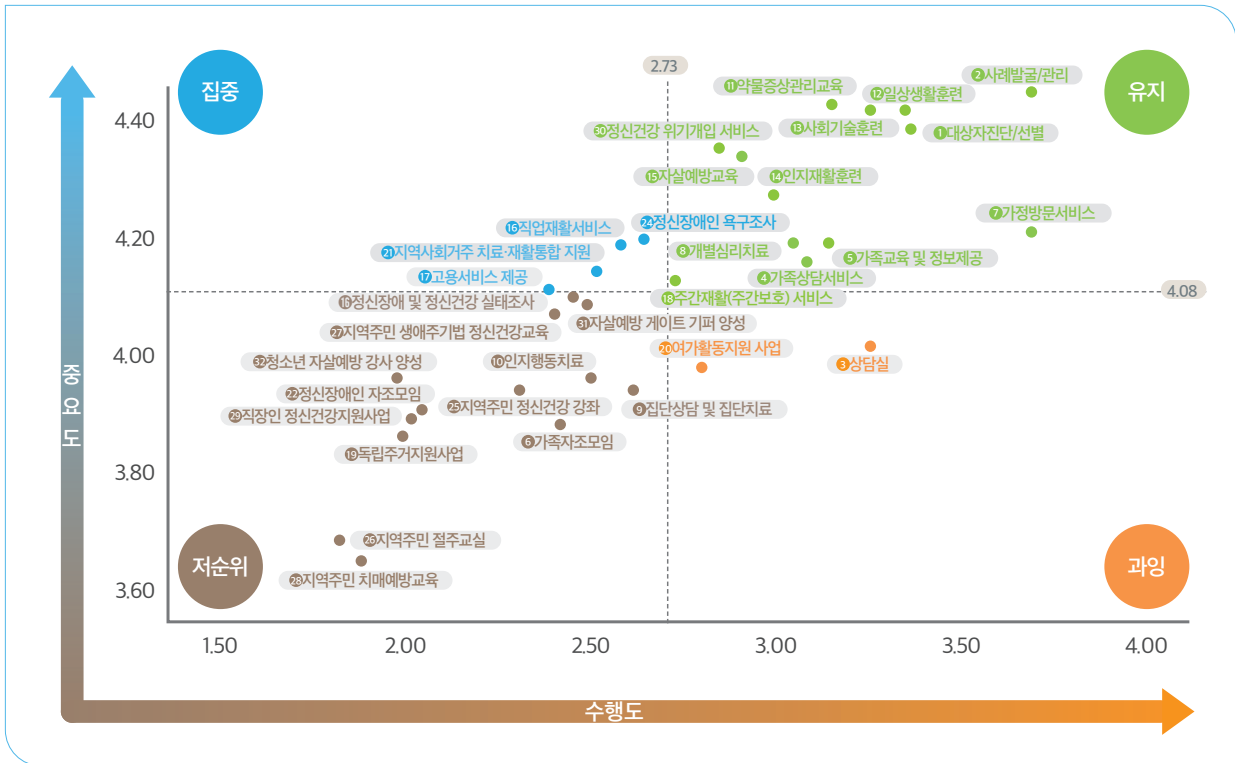
- '의료서비스 연계사업 운영'과 '위기개입 및 안전서비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해나가면서
-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교육연계사업 운영', '자살 위기개입 네트워크 사업'은 강화해나가야 함
- 또한 '유관 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 및 참석'과 '지역사회 합동 사례회의의 개최 및 참석', '지역사회 홍보물(소식지, 리플렛)제작',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은 중요도에 비해 과잉 수행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함

□ 직무 단위별 유지 및 개선 항목

- '대상자 진단 및 선별', '사례발굴 및 관리', '교육훈련', '가족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개별심리치료', '약물중상 관리교육 제공', '일상생활훈련 제공', '사회기술훈련 제공', '인지재활훈련 제공', '자살예방교육 제공', '주간재활(주간 보호)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위기개입서비스업'을 계속 유지해나가면서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거주 치료·재활 통합지원', '정신장애인 욕구조사'를 집중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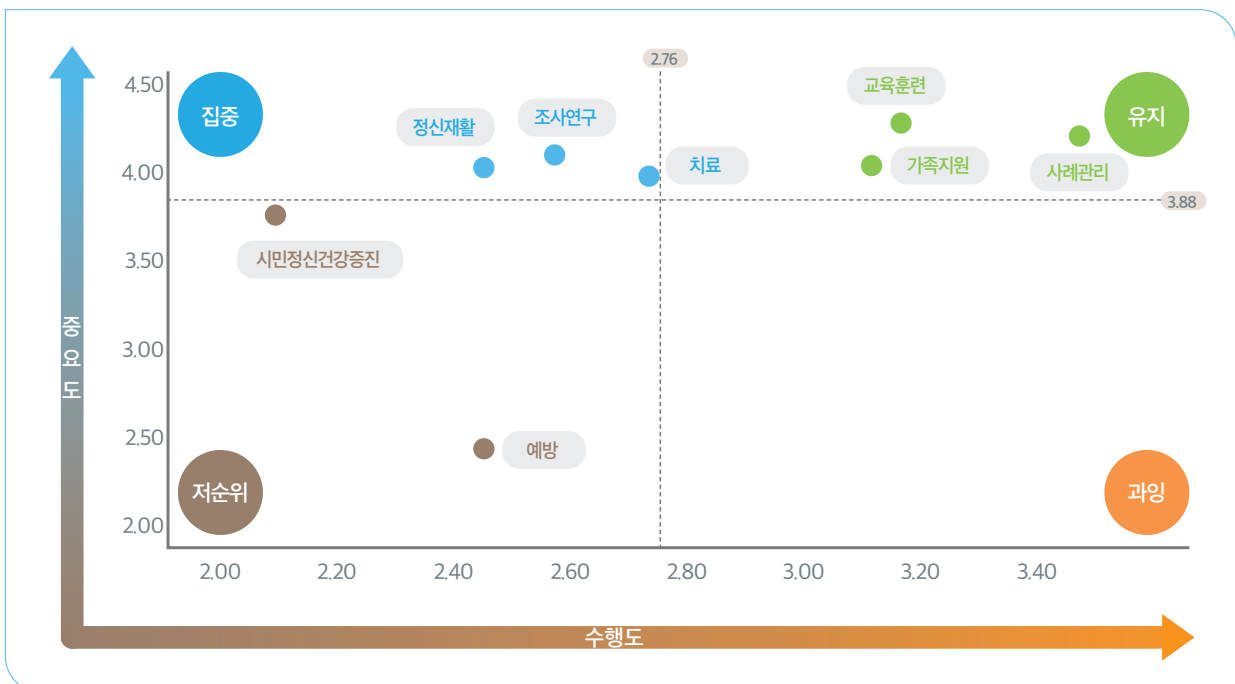
³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속성에 상대적인 중요도와 수행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여 인식을 파악하는 통계기법.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소순창 외, 2019; 임성근 외, 2017).

• 또한 '상담실 운영'과 '여가활동지원사업'은 중요도에 비해 과잉 수행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함



▣ 영역별 유지 및 개선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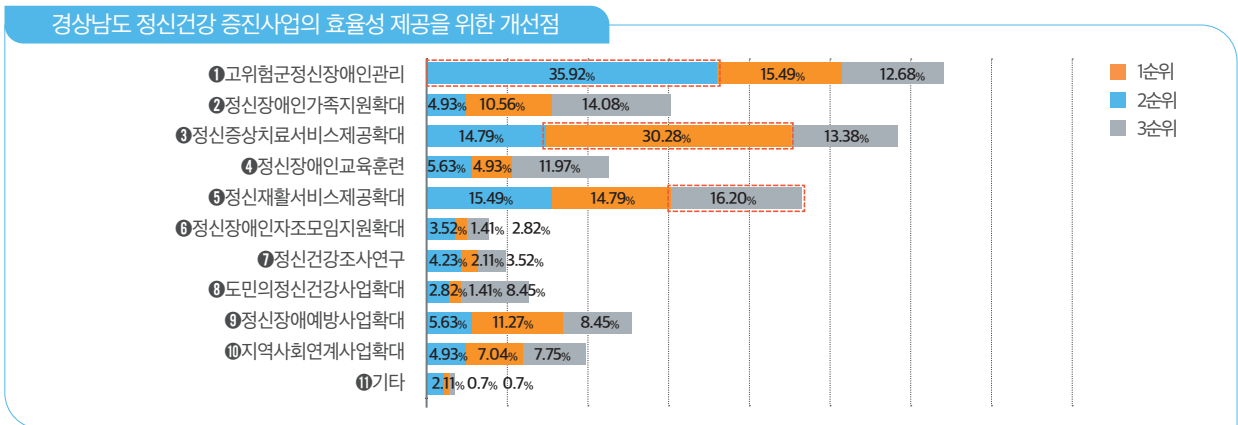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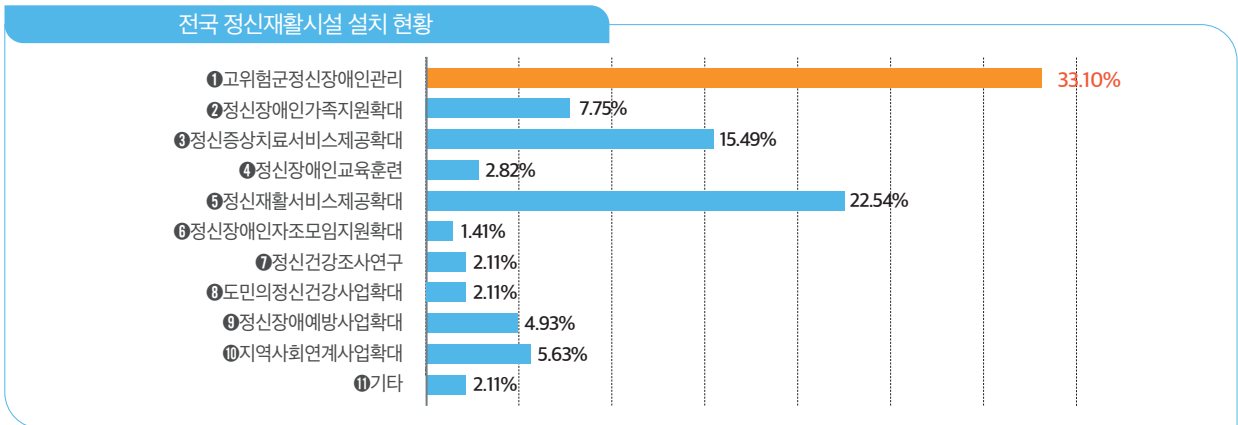
- '사례관리'와 '가족지원', '교육훈련'을 계속 유지해나가면서
- '치료'와 '정신재활', '조사연구'를 집중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함
- 또한 '시민정신건강증진'과 '예방'의 경우 직무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3. 경상남도 정책 우선순위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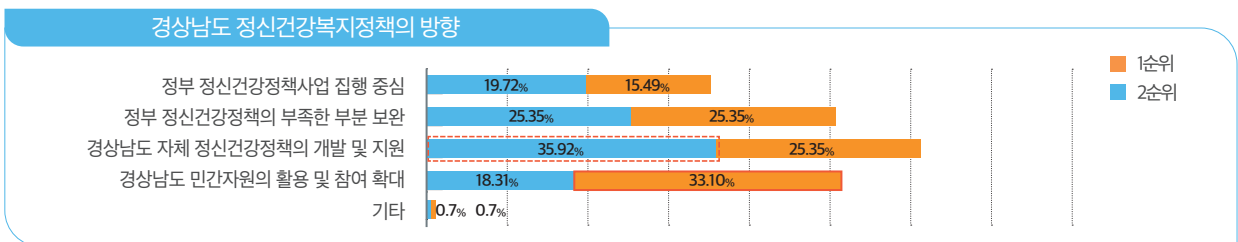
□ 경상남도 정책 우선순위

- 「경상남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 지원해야 하는 분야」는 ‘고위험군 정신장애인관리’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음. 이어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확대’, ‘정신증상 치료서비스 제공확대’ 등이 높은 응답을 보였음. 「경상남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점」 역시 동일한 응답이 나왔음
- 이는 경상남도의 정신건강증진과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위험군 정신장애인관리’, ‘정신재활서비스 제공 확대’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유 업무들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함



□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방향

-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상남도 자체 정책의 개발과 지원’, ‘경상남도 민간자원의 활용 및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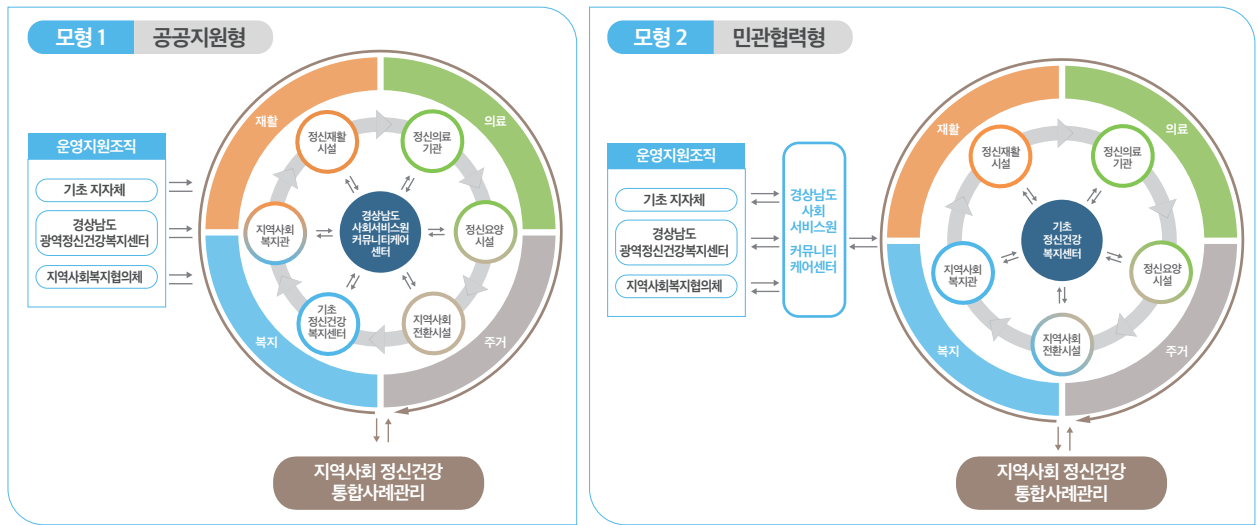
- 요약해보면, 네트워크 관련 사업, 정신재활업무의 강화와 예방 및 홍보 업무의 조정이 우선 과제로 도출됨. 또한 정책적으로 정신건강 고유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의 개발과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III

경상남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정신건강통합관리지원체계 적용

- 경상남도의 지역적 한계와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고,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통합관리지원체계가 필요함.
- 경상남도커뮤니티케어센터를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보유도에 따른 정신건강통합관리지원체계 모형을 적용하면 경상남도 지역의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 자원의 보유도에 따른 「정신건강통합관리지원체계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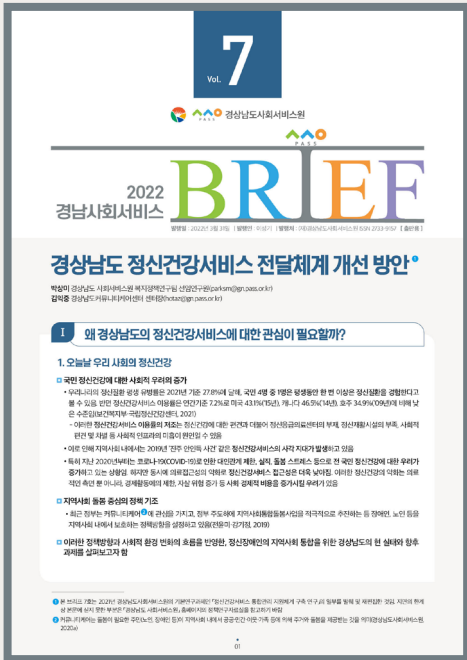


□ 정신건강 인적·물적 인프라의 확대

- 경상남도는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인구 및 인프라의 격차가 심한 상황임. 그 중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설치가 시급함
- 나아가, 정신장애인에게 직접재활 및 취업, 주거 지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신재활시설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재활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전진아·강혜리, 2020). 지역적 편차와 욕구를 고려하여 시설과 지역사회를 잇는 중간체계로서 케어안심주택, 하프웨이하우스(Halfway House) 등의 정신건강 인프라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의 개선 등을 통해 정신건강네트워크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전문인력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처우개선과 권역별 전문인력 관리·양성시스템이 필요함

참고문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a(2020),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경남사회서비스Brief』 2.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b(2020),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증장기 발전계획연구 II』,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김문근(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 검토”, 『비판사회정책』, (62): 7-52.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202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순창·이창섭·한형서(2019), “IPA분석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지방행정연구』, 33(1): 119-144.
 임성근·소순창·이창섭(2017), “IPA 분석을 활용한 정부3.0 ‘서비스 정부’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 차이 분석”, 『행정논총』, 55(2): 137-167.
 전윤미·강기정(2019), “빅데이터 기반의 커뮤니티케어 키워드 및 사회연결망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4(2): 251-269.
 전진아·강혜리(2020),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82: 30-42.
 전진아·전민경·홍선미·전준희·이용주·오미애·이난화·김진호(2017),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현황과 개선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자소개



주저자

박상미(parksm@gn.pass.or.kr)

- 사회복지학 박사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저자

김익중(hotaz@gn.pass.or.kr)

- 사회복지학 석사
- 경상남도커뮤니티케어 센터장

※ 본 자료의 내용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